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의 의미 대조 연구

윤 혜 준

Abstract

Yoon Hyejoon. 2012. 10. 30. **A Comparison of the Meanings of Taste adjectives in Korean and German.** *Bilingual Research* 50, 139-16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meanings of taste adjectives in Korean and German. Taste adjectiv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mon human sens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are concerned with the food life of speakers in a speech community.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the meaning expressions of taste adjectives in individual languages may reflect the own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language of a speech community.

On the basis of this assumption, this paper observes the various aspects of the meanings of taste adjectives in Korean and German, according to 6 basic tastes, i. e. sweet-taste, sour-taste, salty-taste, bitter-taste, hot-taste, astringent-taste. Particularly, the aspects of the meaning shift and meaning extension are examined in priority. First, in the chapter 2,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aste adjectives in Korean and German are briefly surveyed, and the various meaning expressions of taste adjectives are closely observed with concrete examples in two languages. In the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ning expressions of the taste adjectives in two languages are compared and analyzed. **(Korea University)**

【Key words】 미각형용사(taste adjective), 의미 전이(meaning shift), 의미 확장(meaning extension), 기본 미각어(basic taste words)

1. 들어가는 말

맛을 느끼는 감각인 미각을 표현하는 미각형용사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의미장 이론(semantic field theory)에 바탕을 둔 미각형용사의 어휘 체계 및 구성에 관한 연구들이거나 미각형용사의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 분석 및 의미 확장 양상에 논의의 중점을 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거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서 최근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미각형용사들과의 의미 비교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다.

미각이란 혀에 있는 미뢰(taste bud)가 칩에 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여 느끼는 맛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이 인체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적 특성이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미각형용사 역시 어느 언어에서든 보편된 표현 및 보편된 의미적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음식과 식생활이 인간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미각형용사에도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²⁾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동양의 언어들과의 비교도 의의가 있지만, 우리와 좀 더 다른 식생활과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진 서구의 언어들과의 비교 역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리라고 본다.

-
- 1) 미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이 존재하지만, 품사별로 분류하였을 때 미각형용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
 - 2) 인간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표현하는 말 즉 감각어(感覺語)는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공통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간의 유사 표현이 많다는 특징과 더불어 감각을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전이되어 비유적, 상징적 의미로 쓰일 때는 언어 간의 발상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인간의 문화적 존재로서의 특징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손경호, 2007:251).

본 논문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들의 의미적 특징들, 특히 미각형용사 기본 의미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및 비유적인 개념으로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2.1장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들의 형태적, 의미적 특성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혀 표면의 미뢰에 의하여 느껴지는 미각으로서 4가지 맛, 즉,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이 기본 미각으로 알려져 있다(Backhouse 1994, 2).³⁾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위의 4가지 맛에 매운맛과 떫은맛을 더해 6가지 맛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이다.⁴⁾ 따라서 2.2장에서 한국어와 독일어의 이러한 6가지 맛에 대한 각 미각형용사들의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인 용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유사성 및 차이점들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의 의미적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관찰되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들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한 제안이 제시될 것이다.

각 미각형용사의 기본 의미 및 각 용례를 위하여 한국어 사전으로는

-
- 3) 최근 들어, 5번째 맛으로서 1908년 일본 과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유마미(*umami*)라고 불리는 글루타메이트의 맛인 ‘감칠맛(*savory taste*)’을 기본 맛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주로 동양 음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맛으로서(예: 일본어 *umami*, 중국어 *xian*, 인도네시아어 *gurih*), 맛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예: 감칠맛; 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 표준국어대사전), 독일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예: 감칠맛이 나는 ‘*fein, köstlich, vollmundig, wohlschmeckend, delikat, lecker*’ - 옛센스 한독사전) ‘감칠맛’은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 4) ‘맵다’와 ‘떫다’는 원래 입 안에서 일어나는 촉감이지만 미각을 의미하는 ‘맛’과 긴밀하게 결합된다. 음식물을 통해 구강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 또한 미각형용사의 갈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황혜진, 2002, 12; 이수경 2007, 3). 그 외 손용주(1992), 정수진(2005), 손경호(2007) 등 참조.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독일어 사전으로는 두덴(Duden)사전을 이용하였으며, 아울러 독일어 용례 수집 및 관찰을 위해 라이프치히 어휘코퍼스를 참고하였다.⁵⁾

2.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의 의미 양상 대조

2.1 미각형용사의 형태적, 의미적 특징 개관

사전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어의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떫은맛’에 대응하는 독일어의 대표적인 미각형용사는 다음과 같다.⁶⁾

(1) 한국어 : 달다, 시다, 짜다, 쓰다, 맵다, 떫다

독일어 : süß, sauer, salzig, bitter, scharf, herb

한국어의 미각형용사에는 위의 대표 형용사에 접사를 첨가하거나 음운을 교체한 파생형용사와 어간을 중첩한 중첩형용사들이 존재한다.⁷⁾ 의미적으로 이러한 형용사들은 동일한 맛을 표현하더라도 각기 그 맛의 정도나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섬세하게 구분한다.

5) 라이프치히 어휘 코퍼스(Wortschatz-Leipzig); <http://wortschatz.uni-leipzig.de/>

6) 두산동아, 민중엠텐스 사전 참조

7) 각 맛별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각형용사

달다	달콤하다, 달큼하다, 들콤하다, 다디달다, 달짝지근하다, 들쩍지근하다, 감미롭다, 달크무레하다
시다	새콤하다, 시큼하다, 새큼하다, 시금하다, 시디시다, 시크무레하다
짜다	짹짹하다, 짹짹하다, 짜디짜다, 짹짹하다, 간간하다
쓰다	씹쓸하다, 짹쓸하다, 쓰디쓰다, 씹쓸하다, 씹쓰레하다, 씹쓰름하다
맵다	매콤하다, 매큼하다, 맵디맵다, 매웁하다, 매웁하다
떫다	떨떠름하다, 떠름하다, 삽삽하다, 텃텃하다, 떫디떫다

- (2) a. 설탕이 달다.
- b. 설탕이 달콤하다(달-콤-하다). ‘감칠맛이 있게 달다’
- c. 설탕이 달짝지근하다(달- 짝지근-하다).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
- d. 설탕이 다디달다(다디-달-다). ‘매우 달다’

즉, (2)의 예문에서 a는 대상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인데 반하여 과생형용사가 사용된 b와 c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주관적인 평가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황혜진 2002, 10), 단맛의 정도에 있어서도 b와, c, d가 다르다.

이밖에도 단일미각형용사가 아닌, 다른 미각형용사와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미각형용사들이 존재한다.

(3) 한국어 복합미각형용사

전항	후항	복합미각형용사
단맛	신맛	달콤새콤하다, 달콤새금하다
	쓴맛	달콤씹쓸하다, 달콤쌘쌀하다
신맛	단맛	새콤달콤하다, 새콤달금하다
	쓴맛	시큼씹쓸하다, 시큼쌘쌀하다
	뽀은맛	시큼털털하다, 시금털털하다, 시금뽀뽀하다
매운맛	단맛	매콤달콤하다 ⁸⁾ , 알근달근하다, 얼근털근하다
	짠맛	매콤짠짠하다, 맵짜다
	쓴맛	신랄하다 ⁹⁾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알려진 것처럼, 각 미각형용사는 의미 전이에 의한 청각이나 후각, 촉각 등으로의 공감각적 전이 및 의미 확장에 의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의 비유적인 표현에 자주

8) ‘매콤달콤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첨가하였다(네이버 검색어 사용).

9) ‘신랄(辛辣)하다’는 단일이어이지만 한자어로서 ‘맛이 아주 쓰고 맵다’라는 복합미각을 표현한다.

사용된다.

- (4) 한국어 단맛 표현 형용사의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
- a. 달콤하고 짙은, 한밤의 장미 향기
 - b. 그의 목소리가 달착지근하게 흘러나왔다
 - c. 봄에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아직 달콤한 신혼이다
 - b.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편, 독일어에도 한국어와 같이 대표 형용사에 접사를 첨가한 파생형 용사와 다른 어간과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형용사들이 존재하며¹⁰⁾, 의미적으로도 이러한 형용사들은 한국어에서처럼 동일한 맛을 표현하지만 맛의 정도나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섬세하게 구분한다.

- (5)a. Der Kuchen ist süß. ‘케이크가 달다’
- b. Der Kuchen ist süßlich(süß-lich). ‘케이크가 조금 달다, 달착지근하다’
 - c. Der Kuchen ist zuckersüß(zucker-süß). ‘케이크가 매우 달다, 설탕처럼 달다’

또한 복합미각형용사들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의 경우만큼 다양하지는 못하며 전향이나 후향에 단맛 형용사가 결합된 경우만이 나타난다.

10) 각 맛별 독일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각형용사(이해운 2010; Iglhaut 2002; Nawrocki 2004; 두텐사전)

süß	gesüßt, süßlich, zuckersüß, honigsüß, zuckerig, verzuckert, kandiert
sauer	gesäuert, säuerlich, angesäuert, durchsäuert, essigsauer
salzig	gesalzen, versalzen
bitter	zartbitter, gallenbitter, gallig, herb, hantig

(6) 독일어 복합미각형용사

전향	후향	복합미각형용사
단맛	신맛	süßsauer
신맛	단맛	sauersüß
쓴맛	단맛	bittersüß
떫은맛	단맛	herbsüß

또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미각형용사 역시 다양한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을 보여준다.

(7) 독일어 단맛 표현 형용사의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¹¹⁾

- a. Das Parfüm duftet süß. ‘향수 냄새가 달콤하다’
- b. Unsere süße Tochter schläft. ‘우리 예쁜 딸은 자고 있어요’
- c. Er schreibt süßliche Gedichte. ‘그는 달콤한 시를 쓴다’
- d. Sie lächelte süßlich. ‘그녀가 알랑거리며 웃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들의 기본적인 형태적, 의미적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 2.2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6개의 기본 미각과 관련된 미각형용사들의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라이프치히 어휘코퍼스는 süß의 동의어로 gesüßt, süßlich, gezuckert, honigsüß, kandiert, lieb, reizend, sympathisch, überzuckert, verzuckert, zuckersüß, zuckrig를 제시하고 있다.

2.2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의 의미 양상 대조 연구

2.2.1 단맛

(8) 단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단맛
한국어	달다	1.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2.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3.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4. 마땅하여 기쁘다
독일어	süß	1. 1) 설탕이나 꿀의 맛과 비슷하고, 시지 않고, 쓰지 않다, 2) 달콤한 맛의 냄새가 나다 2. 1) 부드럽고 사랑스럽다, 2)귀엽고 매력 있다, 3) 편안하다 3.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상냥하다

* 그 외 단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달콤하다(감칠맛이 있게 달다), 달콤하다(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 들콤하다(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다), 다디달다(매우 달다), 달짝지근하다(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 들쩍지근하다(약간 들콤한 맛이 있다), 달크무레하다(약간 달콤하다), 감미롭다(맛이 달거나 달콤한 느낌이 있다)¹²⁾
- b. 독일어 : gesüßt(단맛이 나다), süßlich(조금 달다, 달착지근하다), zuckersüß(매우 달콤하다, 설탕처럼 달다), honigsüß(매우 달콤하다, 꿀처럼 달다), zuckerig(설탕투성이다), verzuckert(설탕에 절여지다), kandiert(설탕에 절여지다)

‘설탕’과 ‘꿀’의 맛이 가장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는 단맛 형용사는 미

12) 이 외에도 달달하다(단맛이 약간 있다), 달보드레하다(약간 달콤하다) 등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빈도수가 높지 않은 형용사는 생략하였다.

각적으로 단맛뿐만 아니라 음식 맛이 좋을 때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맛있다’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아울러 독일어에서는 ‘발효되지 않다, 상하지 않다’의 의미도 가진다.

- (9) a. 밥을 달게 먹고 잠을 푹 잤다.
- b. Die Speise ist süß. ‘요리가 맛있다’¹³⁾
- c. Das Milch ist noch süß. ‘우유가 아직 신선하다’

미각에서 후각, 청각으로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또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기분이 좋은, 부드러운’의 의미를 표현한다.

- (10) a. Im ganzen Haus riecht es süßlich nach Duftkerzen.
- 집 전체에서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난다.
- b. 감미로운 멜로디 = eine süße Kantilene

또한 의미의 확장과 함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주로 좋은 느낌의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들에서 이러한 의미 확장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형용사들에서 발견된다.

(11) 한국어 단맛 표현 형용사들의 의미 확장¹⁴⁾

달다	1.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2. 마땅하여 기쁘다
달콤하다	1. 흥미가 나게 아기자기하거나 간드러진 느낌이 있다 2. 편안하고 포근하다
다디달다	베푸는 정 따위가 매우 두껍다

13) 이 문장은 ‘요리가 달다’라는 의미로 중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14) 윤혜준(2012, 121).

달짝지근하다	흡족하여 기분 좋은 데가 있다
감미롭다	달콤한 느낌이 있다

- a.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다.
- b. 점심을 먹자마자 달콤한 잠에 빠졌다.
- c. 아씨는 있는 힘을 다해 채득이의 팔을 끌며 꿀같이 끈끈하고 달짝지근하게 속삭였지만.(박완서, 미망)
- d. 그는 마치 감미로운 꿈을 꾸며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박완서, 미망)

독일어에서도 단맛 표현 형용사는 ‘사랑스럽다’, ‘귀엽고 매력적이다’, ‘편안하다’ 등의 기분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 (12) a. Er hat ein süßes Gesicht. ‘그의 얼굴은 귀엽다’
- b. Traum süß! ‘잘 자!’

그러나 단맛 형용사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달콤한 유혹’, ‘달콤한 말’ 등의 ‘달콤한’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그럴 듯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일어에서도 ‘(과도하게) 친절한, (앞에서) 알랑거리는’의 의미가 나타난다.

(13) 독일어 단맛 표현 형용사들의 의미 확장¹⁵⁾

	확장 의미
süß	1. 1) 부드럽고 사랑스럽다, 2)귀엽고 매력 있다, 3) 편안하다 2.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상냥하다
süßlich	1. 달콤하다, 감상적이다 2. 알랑거리다

15) 윤혜준(2012, 121-122).

zucker süß	1. 달콤하다 2. 과도하게 친절하다
honig süß	1. 감미롭다 2. 아양을 떨다, 아침하다

- a. Sie hat ihn mit süßen Worten eingelullen.
‘그녀는 그를 달콤한 말로 무마했다’
- b. Mit süßlicher Miene ‘알랑거리리는 표정으로’
- c. Hülben begrüßt den neuen Bürgermeister zucker süß.
‘힐벤이 새로 온 시장에게 알랑거리며 인사했다’
- d. Sie lächelte honig süß. ‘그녀가 아양을 떨며 웃었다’

한편 단맛 표현 형용사와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는 신맛과 결합한 ‘달콤새콤하다, 달곰새금하다, 새콤달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쓴맛과 결합한 ‘달콤썩썩하다, 달곰쌉쌀하다’, 매운맛과 결합한 ‘매콤달콤하다, 알근달근하다, 얼근덜근하다’가 존재하며, 독일어에는 신맛과 결합한 süßsauer와 sauer süß, 쓴맛과 결합한 bittersüß, 뚝은맛과 결합한 herbsüß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독일어의 단맛신맛 복합미각형용사인 süßsauer와 sauer süß는 의미 확장에 의하여 ‘친절하지만 기분이 불쾌한, 비웃는 듯한’의 의미를 가진다.

(14) 독일어 단맛 복합미각형용사의 의미 확장

- a. Er lächelte süßsauer. ‘그가 비웃는 듯이 웃었다’
- b. eine sauer süße Miene ‘조롱하는 듯한 표정’

2.2.2 신맛

(15) 신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신맛
한국어	시다	1.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 2. 관절 따위가 빠졌을 때처럼 거북하게 저리다 3.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습벅습벅 찢리는 듯하다
독일어	sauer	1. 1) 식초나 레몬즙의 맛이 나다, 2) 발효되어 진득진득하게 되고 신맛이 나다, 3) 산의 성분을 가지다, 3) 부패하다, 썩다 2.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3. 짜증내다, 신경질내다, 화내다

* 그 외 신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새콤하다(조금 신 맛이 있다), 시큼하다(맛이나 냄새 따위가 조금 시다), 시금하다(맛이나 냄새 따위가 깊은 맛이 있게 조금 시다), 새콤하다(맛이나 냄새 따위가 맛깔스럽게 조금 시다), 시디시다(맛이 몹시 시다), 시크무레하다(깊은 맛이 있게 조금 신 듯하다)
- b. 독일어: gesäuert(시어지다, 발효되다), säuerlich(새콤하다, 조금 신맛이 나다), angesäuert(시어지다, 상하다), durchsäuert(충분히 발효되다), essigsauer(식초같이 시다)

한국어와 독일어 신맛 표현 대표 형용사의 기본 의미 서술을 살펴보면, 두 언어 모두 ‘식초’를 신맛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독일어에서 ‘sauer’는 ‘부패하다, 상하다(verdorben)’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썩다(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부패한 음식에서 시금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신맛 표현 형용사들은 다른 미각형용사들에 비해서 공감각적 전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미각에서 후각(17-a), 청각(17-b) 그리고 통각(17-c)으로의 의미 전이 현상이

발견되는데(김준기 2008, 19), 독일어에서는 후각으로의 전이 현상만이 발견된다.¹⁶⁾

- (16) a. 더위에 벌써 상했는지 밥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 b. 박씨의 신소리¹⁷⁾에 모두들 웃었다.
- c. 밖에 나오니 눈이 시어 앞을 잘 볼 수가 없다/발목이 시다.
- d. Das Essen ist sauer geworden. ‘음식이 상하였다’
- e. Die Suppe riecht schon säuerlich. ‘스프에서 썩 냄새가 난다’

신맛 표현 형용사들은 2.2.1의 단맛 표현 형용사들과는 달리 두 언어에서 모두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의 의미 확장이 일어나며 주로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못마땅함 등을 표현한다.

- (17) a. 경수의 아부는 눈썹 시어서 못 보겠다.
- b. Das war eine saure Arbeit. ‘그건 고된 작업이었다’
- c. Sie ist ganz sauer auf uns. ‘그녀는 우리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
- d. Er antwortete säuerlich. ‘그가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많은 형용사들에서 의미 확장이 나타나는 단맛 표현 형용사들과는 달리 신맛 표현 형용사들 중에서는 대표 형용사인 ‘시다’와 sauer,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시큼하다’에서만 의미 확장이 발견된다. ‘시큼하다’는 ‘갑자기 정신이 내둘리어 쓰러질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 (18)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시큼하다.¹⁸⁾

16) 손경호(2007, 271)에 따르면, 일본어에서도 신맛 형용사들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후각으로의 의미 전이 현상만이 발견된다.

17) 이는 ‘마땅하지 않거나 변질된 말’을 의미한다(손용주 2000, 310)

18) 김준기(2008, 24)에서 인용.

신맛 표현 형용사와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는 단맛과 결합한 ‘달콤새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쓴맛과 결합한 ‘시큼쓰쓸하다’, 짠맛과 결합한 ‘시금털털하다’가 존재하는 반면, 독일어에는 단맛과 결합한 süßsauer와 sauersüß만이 존재한다(2.2.1 참조). 한국어 복합미각형용사들 중 ‘시금털털하다’는 ‘맛이나 냄새 따위가 조금 시면서도 짠다’라는 기본적인 미각 표현 외에 ‘어떤 일이나 말이 실망스럽고 못마땅하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19) 그런 시금털털한 소리 하려면 여기 오지 마라.(김주영, 객주)

2.2.3 짠맛

(20) 짠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짠맛
한국어	짜다	1.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2. (속되게) 인색하다
독일어	salzig	1. 1) 소금이 들어 있다, 2) 소금 맛이 나다, 짜다

* 그 외 짠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짹짹하다(감칠맛 있게 조금 짜다), 짹짹하다(좀 짠 맛이나 냄새가 풍기다), 짜디짜다(매우 짜다), 짹짹하다(맛이 없이 조금 짜다), 짹짹하다(감칠맛 없게 조금 짜다), 간간하다(입맛 당기게 약간 짠 듯하다)
- b. 독일어: gesalzen(짜다, 소금에 절이다), versalzen(너무 짜다)

한국어와 독일어의 짠맛 표현 대표 형용사의 기본 의미 서술은 모두 짠맛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소금’을 들고 있으며, 공감각적 의미 전이로서 후각으로의 전이가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1) a. 이상하게도 짠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는다.

b. Die Luft riecht salzig und fischig. ‘바람에서 짜고 비릿한 냄새가 난다’

또한 한국어의 대표 형용사 ‘짜다’는 의미 확장에 의하여 ‘인색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그 외 형용사들 중 ‘짹짹하다’는 주로 금전적인 일과 연관되어 ‘알차고 실속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짹짹하다’는 ‘마음에 못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등 각 형용사들이 각각 다르게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2) 한국어 짹맛 표현 형용사들의 의미 확장

a. 그는 짜다 짹 구두쇠이다.

b.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항상 짹짹한 수익을 올렸다.

c. 씻어 뒀지만 막상 꺼내려고 하니 짹짹하다.

이는 각 형용사의 기본적인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짹짹하다’는 기본 의미가 ‘감칠맛 있게 조금 짜다, 입맛에 적당히 맞게 짜다’는 만족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 확장 의미도 긍정적이고, ‘짹짹하다’는 기본 의미가 ‘맛이 없이 조금 짜다’의 의미이므로 그 확장 의미 또한 부정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어의 경우, *gesalzen*은 ‘짜다, 소금에 절이다’의 기본 의미 외에 ‘(값이) 터무니 비싸다, 거칠다, 무례하다’ 등의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23) a. die Kartenpreise sind *gesalzen*.

‘표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b. Gestern habe ich einen *gesalzenen* Brief bekommen.

‘나는 어제 한 통의 무례한 편지를 받았다’

짠맛과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 ‘맵다’와 결합한 ‘매콤짭 짭하다’와 ‘맵짜다’가 있으며, ‘맵짜다’는 ‘음식 맛이 맵고 짜다’라는 기본 의미 외에 ‘바람 따위가 매섭게 사납다,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성질 따위가 야무지고 응골짜다’ 등의 의미 확장을 보인다.

- (24) a. 여자는 사내를 맵짠 눈으로 흘겨보았다.(송기숙, 녹두장군)
 b. 보기보다 살림 솜씨가 맵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김원우, 짐승의 시간)

2.2.4 쓴맛

(25) 쓴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쓴맛
한국어	쓰다	1. 1)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씀바귀의 맛과 같다, 2)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 2.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독일어	bitter	1. 매우 땀어서 (불쾌한) 맛이 나다 2. 고통스럽다,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다 3. 1) 씹쓸하다, 불쾌하다, 2) 신랄하다, 모가 나다 4. 1) 강한, 큰, 무거운, 2) 매우

* 그 외 쓴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씹쓸하다(조금 쓴 맛이 나다), 씹쓸하다(조금 쓴 맛이 있다), 쓰디쓰다(몹시 쓰다), 씹짜래하다(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 씹쓰름하다(조금 쓴 맛이 나는 듯하다), 씹쓰레하다(조금 쓴 맛이 나는 듯하다)
- b. 독일어: zartbitter((초콜릿이) 우유가 들지 않고 약간 쓴 맛이 나다), galle(n)bitter(쓸개즙처럼 쓰다), gallig(쓰디쓰다), herb(쓰다), hantig(쓰다, 씹쓸하다)

‘쓴맛’에 대한 기본 의미 서술에서 한국어에서는 ‘쓴맛’의 대표적인 예로서 한약, 소태, 씬바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에서 ‘쓴맛’은 특정한 맛이라기보다는 ‘(단맛이 없는) 불쾌한 맛’을 의미하며, 흔히 커피나 초콜릿의 씹쓸한 맛을 표현할 때, 또 ‘악이 쓰다’라는 표현에 대표 형용사 bitter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쓴맛 표현 형용사는 단맛과 반대되는 의미로 입맛이 없을 때나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또한 맛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서 ‘맛없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후각과 청각으로의 의미 전이를 보여 준다.

(26) a. 며칠 아팠더니 입맛이 써서 먹고 싶은 게 없다.

b. 어디선가 썩쓰름한 한약 냄새가 난다.

c. 저자는 국민들에게 쓴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bitter에는 ‘맛없다’의 의미가 없으며¹⁹⁾, 후각으로의 의미 전이만이 나타난다.

(27) Der frisch gemahlene Kaffee riecht bitter.

새로 간 커피에서 쓴 냄새가 난다

쓴맛 표현 형용사는 한국어와 독일어 양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행위나 상황에 전이되어 ‘언짢음, 괴로움, 싫은 기분’ 등의 감정들을 전달하거나 대상이 겪은 일을 빗대어 힘든 경험, 실패나 좌절 등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에 사용된다.

19) 독일어에서 ‘맛없다’는 의미는 형용사 geschmacklos, schal, fade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28) 한국어 쓴맛 표현 형용사들의 의미 확장

	확장 의미
쓰다	1.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 2.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썩썩하다	달갑지 아니하여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조금 나다
쓰디쓰다	몹시 괴롭다.
썩썩레하다	달갑지 아니하여 싫거나 언짢은 기분이 조금 나는 듯하다

- a. 마음을 알겠다는 듯 진호는 썩썩한 얼굴로 담배를 피웠다.
- b.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맛보았다.
- c. Sie lächelt bitter. ‘그녀가 썩썩하게 웃는다’
- d. Die Enttäuschungen haben sie bitter gemacht.
‘실망 때문에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 e. Nachts wird es bitter kalt. ‘밤에 심하게 추워진다’
- f. Ihr Humor ist ziemlich gallig. ‘그녀의 유머는 상당히 불쾌하다’
- g. Der Alte antwortete hantig. ‘노인이 무뚝뚝하게(불친절하게) 대답했다’

‘쓴맛’이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 단맛과 결합한 ‘달콤썩썩하다, 달콤썩썩하다’와 신맛과 결합한 ‘시큼썩썩하다’, 매운맛과 결합한 한자어 ‘신랄하다’²⁰⁾가 존재하는 반면, 독일어에는 단맛과 결합한 bittersüß만이 존재한다. 한국어의 ‘신랄하다’는 미각 표현 외에 ‘사물의 분석이나 비평 따위가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독일어의 bittersüß는 한국어의 ‘달콤썩썩하다’와 같이 미각의 ‘달콤하면서 썩썩하다’의 의미에서 확장된 ‘고통스럽지만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진다.

(29) bittersüße Erinnerungen ‘달콤썩썩한 추억’

20) 맛이 아주 쓰고 맵다(표준국어대사전)

2.2.5 매운맛

(30) 매운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매운맛
한국어	맵다	1. 고추나 겨자와 같이 맛이 알알하다 2.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 3. 날씨가 몹시 춥다 4. 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5.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
독일어	scharf	1. 1) 칼이 잘 들다, 2) 뽀족하고 모가 나다, 날카롭다 2. 1) 톱 쏘는 듯하고 타는 듯한 맛이 느껴지다, 2) 코를 찌르는 듯이 강한 (냄새가 나다) 3. 1) 소리가 자극적이다, 2)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다 3) 강하고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다 4. 혹독하다, 매섭다, 격렬하다

* 그 외 매운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맴콤하다(냄새나 맛이 약간 맵다), 맴끔하다(냄새나 맛이 아주 맵다), 맵디맵다(매우 맵다), 매움하다(혀가 조금 알알할 정도로 맵다), 매웁하다(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다)
- b. 독일어: beißend(얼얼하다), prickelnd(따끔거리다, 얼얼하다)

매운맛을 표현하는 ‘맵다’라는 대표 형용사가 존재하는 한국어와는 달리 독일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미각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어 *scharf*의 제1 의미는 ‘날카롭다, 뽀족하다’로서, 제2 의미가 ‘(맛이) 너무 아리거나, 쓰거나, 짜거나, 맵거나, 시어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강하고 자극적인 맛이 나다’로 흔히 겨자의 자극적인 맛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예: *scharfer Senf* ‘매운 겨자’). 앞에 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²¹⁾ 원래 ‘매운맛’은 순수한 미각이라기보다는 고추, 마늘, 파와 같은 자극적인 음

21) 각주 4 참조.

식을 먹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통증, 즉 촉각으로서, 맵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음식 문화에서는 매운맛이 하나의 독립된 미각으로 인식될 정도로 즐겨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²⁾

한국어에서는 공감각적 전이로서 후각으로의 전이와 외부자극에 의한 신체적 고통, 특히 추위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아픔과 같은 촉각적 감각으로의 전이가 관찰되며, 독일어에서는 후각 및 청각과 촉각으로의 전이가 나타난다.

- (31) a. 골목길에서 고추 타는 매운 냄새가 났다.
- b. 겨울 바람이 맵다/등을 때리는 할머니의 손이 매웠다.
- c. Wieso riecht Schweiß manchmal unangenehm scharf?. ‘왜 가끔씩 땀에서는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날까?’
- d. Er hat eine scharfe Stimme.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 e. Es wehte ein scharfer Ostwind. ‘매서운 동풍이 불었다’

그 외에 의미 확장에 의하여 한국어에서는 주체의 심리적 고통 및 괴로움을 전달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주의 깊게) 꿰뚫는 듯하다, (눈이나 귀가) 예리/예민하다’, 또 ‘신랄하다, 혹독하다, 매섭다’ 등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나타난다.

- (32) a. 아직 인생의 매운 맛을 못 보았군.
- b. 순이의 매운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다.
- c. Er betrachtete ihn scharf.
 ‘그가 그를 주의 깊게 꿰뚫는 듯이 응시했다’

22) 한국어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맵다(からい)’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에서 매운 맛의 대표적인 예로 ‘고추, 고추냉이, 후추, 생강, 산초’의 맛을 들고 있다(손경호 2007, 262).

- d. Er hat schärfere Augen als ich. ‘그는 나보다 눈이 예리하다’
- e. Sie war sehr scharf gegen ihn. ‘그녀는 그에게 아주 매서웠다’

‘매운맛’이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는 ‘짠맛’과 결합한 ‘매콤짭짤하다’와 ‘맵짜다’, ‘쓴맛’과 결합한 ‘신랄하다(맛이 아주 쓰고 맵다)’가 있으나, 독일어에는 복합미각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²³⁾

2.2.6 뚝은맛

(33) 뚝은맛 표현 대표 형용사와 그 의미

대표어	뚝은맛
한국어 뚝다	1. 설익은 감의 것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2. 하는 짓이나 말이 덜 되고 못마땅하다
독일어 herb	1. 맛과 냄새가 단맛이 없고 약간 맵고, 살짝 쓰거나 새콤하다 2. 근심을 야기하다, 가혹하다, 고통스럽다 3. 1) 밍살스럽다, 투명스럽다, 신랄하다, 혹독하다 2) 불친절하다

* 그 외 뚝은맛 표현 형용사들과 각 기본 의미

- a. 한국어: 떨떠름하다(조금 뚝은맛이 있다), 떠름하다(맛이 조금 뚝다), 샅샅하다(맛이 매우 뚝다), 뚝디뚝다(매우 뚝다), 텁텁하다(음식 맛 따위가 시원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다)
- b. 독일어: feinherb((포도주가) 약간 씹쓸한 맛이 나다, 약간 뚝다), bitter(쓴맛)

‘뚝다’ 역시 ‘맵다’와 마찬가지로 촉각이지만 미각을 의미하는 ‘맛’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설익은 감’의 맛이라고 정확하게 기술된 한국어와는 달리 ‘단맛이 없고 신맛과 쓴맛 사이의 맛’으로 표현되는 독일어

23) 2.2.3, 2.2.4 참조.

의 herb는 전형적으로 와인의 떫은맛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다른 미각형용사들과 마찬가지로 후각 및 청각으로의 의미 전이가 발견되는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후각적 전이만이 발견된다.

- (34) a. 어디선가 떫은 냄새가 난다.
- b. 전화속의 여인은 계속 떨떠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 c. Der herbe Duft des Herbstlaubs ‘낙엽의 떫은 냄새’

대체적으로 한국어에서 떫은맛 표현 미각형용사는 떫은맛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에서 오는 미각적인 불만족이 추상적 차원의 불만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흔히 좋지 않은 느낌이나 행위나 상황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35) 한국어 떫은맛 표현 형용사들의 의미 확장

	확장 의미
떫다	하는 짓이나 말이 덜되고 못마땅하다
떨떠름하다	1. 흐리멍덩하여 어딘가 푹푹하지 않을 데가 있다 2. 마음이 내키지 않는 데가 있다
삼삼하다	1. 매끄럽지 아니하고 곁곁하다 2. 말이나 글이 분명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툼툼하다	1. 까다롭지 아니하여 무뎠하고 소탈하다. 2. 날씨가 몹시 후텁분하다

- a. 그가 계속 떫은 표정으로 쳐다봤다.
- b. 허락은 했지만 웬지 기분이 떨떠름하다.
- c. 사람이란 툼툼하고 수더분하고 어수룩한 맛이 있어야지.

(이희승, 병어리냉가슴)

독일어의 herb 역시 ‘가혹하다, 신랄하다, 불친절하다’ 등 대개 부정적인 의미들을 표현하며 쓴맛 표현 형용사와 자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또 매운맛 표현 형용사의 확장된 의미와 겹치기도 한다.

- (36) a. ein herbes Gesicht ‘뚝은 표정의 얼굴’
 b. eine herbe Niederlage ‘혹독한 패배’
 = eine bittere Niederlage
 c. herbe Kritik ‘신랄한 비판’
 = scharfe Kritik
 d. Sie wurde herb enttäuscht. ‘그녀는 쓰라린 실망을 하였다’
 = Sie wurde bitter enttäuscht.

복합미각형용사로는 한국어에는 신맛과 결합한 ‘시큼털털하다, 시금털털하다, 시금떨떨하다’가 있으며 독일어에는 단맛과 결합한 herbsüß가 나타난다.²⁴⁾

3.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 의미 양상의 특징 대조

지금까지 한국어의 6가지 기본 맛,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뚝은맛을 표현하는 미각형용사들과 이에 대응하는 독일어 미각형용사들의 다양한 의미 양상들을, 의미 전이 및 의미 확장의 예들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 보았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매우 다른 언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 사이에 여러 유사한 의미적 특성들이 발견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몇몇 차이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감각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감각으로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는 6가지 기본 맛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독일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후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24) ‘시금털털하다’의 의미 확장에 대해서는 2.2.2 참조.

있었는데, 이는 후각과 미각 둘 다 냄새와 맛을 나게 하는 미세한 분자에 의해 자극을 받으므로 두 감각의 관계가 다른 감각에 비해 밀접하다는 기존 연구(이수경 2007, 46)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37) 한국어와 독일어 미각형용사의 의미 전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뽀은맛
한국어	후각 청각	후각 청각 촉각	후각	후각 청각	후각 촉각	후각 청각
독일어	후각 청각 시각	후각 시각	후각	후각	후각 청각 촉각	후각

또한 두 언어에서 모두 촉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다른 감각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사실과, 이와 같은 현상이 일본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라는 점(손경호 2007; 이수경 2007) 역시 공감각적 의미 전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최창렬(1999)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8) 공감각적 의미 전이의 규칙성

촉각 → 미각 → 후각 → 청각/시각

한국어와 독일어의 미각형용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고 따라서 가장 풍부한 의미 전이와 의미 확장을 보여주는 형용사는 단맛 표현 형용사였다. 단맛 표현 형용사의 경우, 여러 미각형용사들 중에서 그 의미가 가장 긍정적으로 ‘기분 좋다, 부드럽다’ 등의 좋은 느낌과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한국어와 독일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도 역시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볼 때(김연화 2005; 손경호 2007; 권희정 2008), 인간이 단맛에 가지는 보편된 긍정적인 느낌에서 온 특징으로 보인다.

단맛 표현 형용사와 대조적으로 한국어와 독일어의 미각형용사들 중 의미가 가장 부정적인 형용사는 쓴맛을 나타내는 형용사였다. 쓴맛 표현 형용사는 단맛 표현 형용사들과 더불어 확장된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용사인데, 단맛과 반대로 ‘언짢다, 괴롭다’ 등 의 안 좋은 느낌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 역시 쓴맛을 단맛이 없는 불쾌한 맛으로서 인식하는 인간의 보편된 느낌에서 온 특징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신맛과 짠맛 미각형용사들 역시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짠맛 표현 형용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사용되는 문맥과 어떤 형용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만이 발견되며 두 언어에서 모두 금전과 관련된 표현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복합미각형용사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단맛 표현 형용사가 결합된 형용사들이었다. 한국어의 경우는 단맛 외의 다른 미각형용사들만으로 결합된 형용사들도 존재하였으나 독일어에는 오직 전향 또는 후향에 단맛 표현 형용사들이 결합된 복합미각형용사들만이 존재하였다. 단맛과 결합한 복합미각형용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 역시 한국어와 독일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볼 때(이수경 2007) 언어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인간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호감을 주는 미각인 단맛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맺는 말

Backhouse(1994)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 미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특히 문화에 상대적이며, 따라서 문화에 의존적인 의미 표현들에 있어서 문화권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와 독일어의 미각형용사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언어 사이에 몇몇 의미적 차이점들도 발견되었으나 대체적으

로는 차이점들보다 유사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각의 공통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6가지 맛을 기본 맛으로 삼아 이에 해당하는 미각형용사들의 의미 양상들을 살펴보았으나 이 외에도 두 언어에는 다양한 미각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존재한다(예: 한국어 - 싱겁다, 독일어 - fade). 기본 미각어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어휘들까지 포함하면 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6가지 맛에 대해서 모두 다루다 보니 각 맛별 미각 표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기대해 보며,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상이한 독일어의 미각형용사들의 의미 양상을 한국어 미각형용사들의 의미 양상과 처음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희정(2008). 한중 기본미각어 의미확장 공통성 연구, <남도문화연구> 15집, 7쪽~38쪽.
- 김연화(2005). 한중 감각형용사 의미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준기(2008). 미각 형용사의 의미 고찰, <어문학> 100집, 1쪽~30쪽.
- 손경호(2007). 한일 양언어의 미각어 고찰 - 기본 미각형용사를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62호, 251쪽~275쪽.
- 손용주(1992). 감각형용사의 분류 체계, <대국어문논총> 10집, 127쪽~154쪽.
- 손용주(2000). 국어어휘론 연구 방법. 서울:문창사.
- 윤혜준(2012). 미각형용사의 의미전이 및 확장 양상 비교 연구: 한국어, 독일어, 영어의 단맛 표현 형용사를 중심으로, <언어정보> 15호, 113쪽~130쪽.
- 이수경(2007). 한·일 양언어의 미각형용사에 관한 연구 : 의미 전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윤(2010). 온톨로지를 이용한 언어들간의 어휘 비교, <독어학> 21집, 151쪽~172쪽.
- 정수진(2005). 미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 <한국어 의미학> .18호, 149쪽~174쪽.
- 정수진(2005). 국어 ‘맛’ 표현의 의미 확장 양상 -‘단맛’과 ‘쓴맛’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27집, 71쪽~88쪽.
- 최창렬(1999). 말과 의미. 서울:집문당.
- 황혜진(2002). 미각 형용사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Backhouse, A. E.(1994). *The Lexical Field of Taste: A Semantic Study of Japanese Taste Ter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 Y. & Kim, E. (2010). An ontology-based comparative study on ‘taste’ words in English and Korea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6-2, pp317-341.
- Nawrocki, T. (2004). *Wortsinn und Geschmackssinn. Geschmacksadjektive und Werbung*. Abschlußarbeit zur Erlangung des akademischen Grades eines Magister Artium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Stuttgart.
- Iglhaut, B.(2002). *Synonyme*. Henning Liebke.

* 온라인 사이트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네이버국어사전 <http://dic.naver.com/>

두덴 온라인 사전 <http://www.duden.de>

라이프치히 어휘 코퍼스(Wortschatz-Leipzig) <http://wortschatz.uni-leipzig.de/>

윤혜준(Yoon, Hyejoon)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BK21언어학이론응용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전화번호: 02-3290-1648

전자우편: spesyoon@korea.ac.kr

접수일자: 2012. 8. 19

심사(수정)일자: 2012. 9. 10

게재확정: 2012. 10. 10